

신안군 죽도에 공식 등대 설치, 목포~제주 항로 안전성 높인다

- 지난해 11월 여객선 좌초사고 지점에 공식 죽도등대 착공, 10월 말 준공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新安군 죽도에 설치했던 임시 등대를 공식 등대로 전환하여 설치한다고 밝혔다.

죽도 인근 해상은 지난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퀵제누비아 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당시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객선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양수산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해당 해역에 임시 등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에 임시 등대가 공식 등대로 전환됨에 따라, 등대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높이는 기존 4m에서 16m로 약 4배, 직경은 0.4m에서 2.5m로 약 6배 커져 등대를 더욱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등대 내구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 등대 설치 공사는 6월 30일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될 예정이며, 공식 등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등대는 계속 운영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죽도등대가 공식 등대로 새롭게 설치되면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형준 (051-773-5870)
	항행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희 (051-773-587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이태환 (061-280-1720)
	항행정보시설회	담당자	주무관	안창희 (061-280-1727)



임시 족도등대 전경(높이 4m)



공식 족도등대 조감도(높이 16m, AI 활용 이미지)